

다른 복음은 없나니

효자제일교회 목사·홍 순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개역, 갈라디아서 1:1~10]

훈 히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 야고보서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이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책이 서로 상반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하는 말과 학교 안 다니려고 하는 학생에게 하는 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에게는 “쉬어가면서 하라.”고 하기도 하고 “체발 잠 좀 자라.” 그러기도 하지요. 그런데 공부는 고사하고 학교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에게는 “애, 공부는 안 해도 학교는 마쳐야지? 내가 니 보고 공부하라고 하냐? 졸업장이라도 따야지.” 이러는 것 아니요? 대상이 다르면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가 달라 보이는 것은 이렇게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쓸 때에 염두에 두고 있는 대상자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에 해당 됩니다. “이번 시험 잘 치면 우리 아빠가 MP3 사주시기로 했다.” 혹은 “이번 시험 잘 치면 틀림없이 컴퓨터 사 주기로 했다.” 그런데 반에서 자기를 따라올 아이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시험지 받아들고 기쁠 수밖에요!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잘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거의 안합니다. 이미 잘 믿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시련이 닥쳐오거든 인내하라, 그런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가르쳤다는 오해를 받은 겁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갈라디아서는 공부느커녕 학교를 그만 두려는 학생에게 하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관한 얘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공부 잘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시험 잘 치고 공부 잘 하라고 얘기할 형편이 아닙니다. 1절 보세요. 바울이 쓴 어떤 성경에서도 시작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무슨 얘깁니까?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7절엔 또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너희를 변하려 함이라’ 시작부터 말이 아주 거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도냐?’ “누가 바울을 사도로 임명했던 말이나?” 말하자면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이 나올 형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것은 아주 강성 발언입니다. 통명스럽고 심하게 책망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비유가 좀 좋지 않습니다마는 회사에서 비슷한 직급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었다거나 위의 사람이 일을 시키는데 마음에 전혀 들지 않으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월급 니가 주냐? 니가 날 임명했냐?” 심하면 “사장 오라 그래!” 왜 그러니까? 나를 이 자리에 놓은 사람이 사장인데 니가 왜 그러냐?’ 이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왜 시작부터 이런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만난 즉시 사람이 변해서 거꾸로 유대 지도자들을 꺾어서 굴복시켜 버렸다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21절을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고 회심해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지방의 어떤 악한 무리들이 ‘도대체 누가 사울을 사도로 세웠느냐?’고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옆에 섰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당신이 하늘로서 온 표를 보자”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훼방하는 죄는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셨다는 것을 눈으로 뵈면서도 억지로 부정하면서 다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증거를 봐도 여전히 부인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훼방하는 죄입니다.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도 굳이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했던 것은 거의 준성령훼방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내 혈육이나 누구하고 의논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뒤에 보면 다른 어떤 사도들에게 배웠거나 그 사도들이 인정을 해 줘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음에도 수제자인 베드로와 내가 교제의 악수를 나누었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에 ‘내가 그를 책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한 것을 이야기한 것은 자기의 권위를 말하거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도인 것이 다른 모든 사도들도 인정했고 내가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책망할 수 있었다. 자신이 분명하게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만약 사도라는 것이 부정되면 지금까지 전해온 모든 진리가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목사가 존경을 받지 못하면 개인적인 불행이기도 하지만 교회 전체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목사님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사도인 것이 부정되면 목숨 걸고 전한 복음 자체가 거짓으로 판명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인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처음에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분명히 사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복음에 대하여 주장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말하는지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저주 받을지어다’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심지어 10절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라고 말합

니다. 굉장히 과격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과격한 사람이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격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무리들을 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앞장서서 뛰어다녔던, 열심이 특성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는 과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수 많은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 겸손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주 변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기에서 다시 과격하고 험한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에 있는 넓은 지역으로 그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곳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좇는 것 때문에 열을 낸 것입니다. 다른 문제라면 이렇게 열을 안 냈을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복음을 좇을 뿐 아니라 6절에 '이와 같이 속히' 내가 복음을 전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런 느낌을 가지고 야단을 쳐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무리들을 이단이라 여기고 이들을 박멸하겠다고 뛰어다니던 모습과 비교하면 이건 과격한 것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울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냐?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바꾸어 가르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한 치도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한마디도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웬수같이 지내요?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은 참 행복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네시모 아닐까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기꺼이 옛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면 잡혀서 죽을 몸입니다. 도망쳐 나온 노예가 편지 하나를 들고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다 용서하고 '돌아가서 선생님 잘 모셔라'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이 됩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난 행복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을 만난 사람도 정말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내용을 바꾸거나 변조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것이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전함으로 참된 기쁨을 사람에게 전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이웃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이웃 사람에게 온통 욕을 먹어가면서 그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일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어떻게든 기쁘게 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는 것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이고 이것은 사람을 의식해서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던 이 진리를 오해한 사람들이,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오해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런 반대자들이 등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

이 전해준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바울에게 반대하고 극렬하게 그를 해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외치는 복음이 도대체 말이 안되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한 그 복음이 됩니까?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건드릴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당연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야고보서와 잠시 비교를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까?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고 했습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구절은 2장 22절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입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된 믿음'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는 이 말을 그 다음과 연결해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이 '온전케 된 믿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아시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행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에 바탕을 둔 행함, 이것이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책망하는 것이지 믿음도 없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부정관과 비슷합니다. 품으면 알이 깨어나는 게 아니고 썩어버립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믿음과 관계없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그것을 야고보는 행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행함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글자는 같아도 내용은 다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믿음과 행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듭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율법'이 바로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과 율법을 어린 주인과 그를 훈육하는 종에 비교합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주인입니다. 이 아이를 교육하는 후견인은 종입니다. 누가 근사합니까? 주인이지만 여전히 철딱서니가 없어요. 반면에 주인의 어린 아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종은 그렇게 행색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많고, 훌륭한 스승입니다만 종입니다. 율법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종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겠다고 할 때 믿음은, 어떻게 본다면 이게 뭐가 되겠냐 싶어도 그건 주인의 어린 아들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믿음을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은 로마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일하지 않고 월급 받는 것 말입니다. 일 안 하고 월급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걸 바라지는 마세요. 우리가 받은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지 그런 꿈을 꾸라고 하는 애긴 아닙니다. 그냥 상상만 해 보세요. 일하지 않고 월급 많이 받는다면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시내 어느 사립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처음 와서 시간표를 짜는데 열이 난 겁니다. 선생님들이 보통 주당 20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어찌다가 2시간이나 4시간 정도 다른 사람보다 많아지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일주일에 4시간 많으면 일 년이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남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은 누가 수업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느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 학교에 옮겨와서 처음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어느 여선생님이 일주일에 6시간밖에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신경질이 나서 고함을 쳤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있냐? 누가 6시간밖에 없냐?"고 했더니 누가 옆에서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조용하라고 하더랍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재단 이사장의 따님이라는 겁니다. 기분은 나쁘겠지만 어찌했어요?

일주일에 6시간, 하루에 1, 2시간만 근무하면서 몇 년 지나면 교감자격을 얻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교장

이라도 시키겠다는 것이겠지요. 경력 관리를 위해서 선생님 흉내만 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재단이사장 딸인데요 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싫어해서 문제가 되기는 되겠지요?

그런데 바울의 얘기는 그것보다 더해요. 수업 하나도 안 하고 월급 다 줘요. 불법입니다. 그럼 안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고 월급 받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월급을 받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월급 정도가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행함이 없는데도 영생을 받았습시다. 아니 이런 공짜가 어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나 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6시간밖에 안 하는데도 월급을 다 받고 경력 관리 다 하고 왜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 딸이니까요. 부너지간이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객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와 결부시켜 보세요.

한 달에 용돈을 얼마 주기로 했는데 아이들은 꼭 무슨 빗쟁이가 빚 맡겨 놓은 것처럼 내 놓으라고 합니다. 아무 것도 안 해도 줘야 되지요? 왜요? 낳았잖아요! 낳은 죄가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초등학교 때 과자 값 받아가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많이 나가죠? 대학 보내봐라 이러지요? 대학교 보내니까 정말 허리가 휘다 이러면 옆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꺼번에 둘 보내봐라!” 아니 개들이 뭐 했다고 다 퍼 내줍니까? 자녀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너무 당당하면 아버지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좀 컸다고 자기가 월급 좀 많이 받는다고 아빠가 “야 차비 줄까?” 하는데 “됐습니다. 아버지 얼마 받는다고?” 이거 섭섭합니다. “차 한대 사줄까?” 하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그 정도 능력이 됩니다.” 섭섭하더랍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별로 없는 아버지가 차비 준다고 하면 감사하고 받아 넣으세요. 헌 차라도 사줄까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달라고 그러세요. 부모 앞에 너무 그렇게 당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런 관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그것 다 필요없다, 믿음으로!’ 이러니까 이해가 안되고 용납이 안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헌금주머니 돌리는 것, ‘이거 돌리지 말고 헌금함을 씁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됩니다. 이 뒤에 십자가 하나 달려 있죠? 저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핏박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다른 교회에 가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붙였다고요? 그거 붙이면 어떻고 안 붙이면 어떤데요? 그게 안됩니다.

단순한 것 하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우리 어릴 때는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것 꿈도 못 꿔습니다. 우리보다 더 한 분들도 있더라구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예배시간에 행사 때 사진을 찍으니 “어떻게 교회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하니까 재건파에서 왔다고 해요. 이런 작은 생각 하나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것도 아닌 것도 그러한데, 세상에,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던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이 뭔데? 말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행함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의로워진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사도권이 흔들리면 바울이 전한 진리도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세워 놓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심하게 따라다니면서 온갖 박해를 가했음에도 곳곳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행함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 '믿으면 되었지 행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오해했을 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행함으로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 앞에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고 반면에 야고보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떻게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필요 없는 책입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일을 이루셨는지를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 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감격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한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런 감격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그러면서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